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끄느름하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날이 흐리어 어둠침침하다.

문헌의 첫 기록	수록 용례	수록 내용
20세기	3개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끄느름하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날이 흐리어 어둠침침하다.

끄느름하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끄느름하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끄느름하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ᄭᅳ느름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끄느름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끄느름하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ᄭᅳ느름하-, 끄느름하-

ㄲ느름하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꼬느름하다’는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말의 구성과 어원

‘꼬느름하-’는 빛이나 불이 약하거나 어두움을 뜻하는 ‘꼬느름’과 접미사 ‘-하-’가 결합한 것이다.

표기 방식과 특징

이전 시기의 된소리 표기가 반영된 ‘ㅆ느름하-’도 나타난다.

문헌 속의 ㄲ느름하다

전체 용례 3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ㅆ느름하-, ㄲ느름하-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ㅆ느름하-, ㄲ느름하-

출처 1922 동아일보 8월 21일 3면 용례 01

문헌 용례

재작일 이래의 비는 쏘 장마의 시초와 가치 개이지는 아니하고 하늘만 ㅆ느름하야 『금년에는 비가 오기 시작만 하면 길다』는 말이 싱기게 되얏는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5 조선일보 3월 2일 3면

용례 02

문헌 용례

이때 마츰 퍼붓든 눈은 조금 쓰느름하여졋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6 조선일보 3월 10일 석간 4면

용례 03

문헌 용례

사탕이 녹아 끌어서 웃거죽이 보일 때 재바르게 다른 재료를 모다 너허 하지고 끄느름한 불에 한 오 분 두엇다가 다시 불을 팔케 해 가지고 끄려 냅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끄느름하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끄느름하다의 뜻과 역사